

## “너와 내가 만드는 더 멋진 세상!”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 약정행사 ... 3월 16~17일 약정서, 전화, 홈페이지 참여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 약정행사가 ‘너와 내가 만드는 더 멋진 세상’을 주제로 열린다. 3월 16일(토)과 17일(일) 온누리교회 모든 예배에서 나누주는 정기후원 약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NGO 더멋진세상 홈페이지(abetterworld.or.kr) 또는 하단 QR코드에서 참여할 수 있다. 전화(02-2271-2246)로도 동참할 수 있다<관련기사 6면>.

NGO 더멋진세상은 2010년 설립된 국제개발 NGO다. 현재 전 세계 37개국에서 가난과 질병,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섬기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에서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금으로 운영하는 자체 사업과 더불어 외부 기관과의 협력 사업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말라위에서 ‘영유아 발달 교육사업’, 우간다에서 ‘우간다 북부 팔로니아 난민촌 WASH 및 보건위생 환경 개선 사업’, 르완다에서 ‘르완다 농업 가치사슬 연계를 통한 빈곤 여성 자립 역량 강화 사업’ 등을 하고 있다.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는 세네갈에서 ‘세네갈 생루이 기후 대응 스마트 농업교육을 통한 소득 증대 사업’, G&M(Grace and Mercy) 재단과는 코트디부아르에서 ‘코트디부아르 지역 교회의 성경 접근성 개선 및 공동체 성경읽기 활성화 사업’, 사랑의 열매와는 모리타니에서 ‘모리타니 아동 영양 상태 개선 사업’을 하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에서는 연 4-5회 자체 캠페인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우간다 거주 난민들을 위한 ‘말라리아 예방 모기장 지원 캠페인’, 르완다 여성 가장을 위한 ‘농민



NGO 더멋진세상에서 운영하는 ‘르완다 ECD 유치원’ 아이들과 교사들.

지원 캠페인’ 등을 했다. 올해는 교육환경지원, 취약계층 영양지원, 성탄절 선물보내기 등의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

문의: 02-2271-2246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 3월 31일까지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 일상에서 플라스틱 사용량 줄이기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바이 바이 플라스틱’이 3월 31일(일)까지 이어진다.

오는 3월 30일(토)까지는 ‘실천하기’ 기간이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을까?’를 주제로 실제 플라스틱 줄이기를 실천하면 된다. 일상에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인 다음 사진으로 찍어 기록하면 된다.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참가 소감문을 받는다. 4월 7일(일)까지 캠페인 기간에 찍은 사진과 간단한 소감문(A4 한 장 이내)을 이메일로 보내면 온누리교회 SNS와 <온누리신문>에 그 내용을 게재한다.

차세대 그림 대회 및 전시회도 한다. 4월 14일까지 창조질서 회복 관련 A4용지 한 장 크기의 그림을 그려서 이메일(onnuri.lent@gmail.com)로 보내면 된다. 5월 5일 서빙고온누리교회 이천만광장에 전시한다.

### 십자가의 증인들

#### 3월 25~29일 ‘2024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2024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한다. 3월 25일(월)부터 29일(금)까지 오전 5시 30분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본당에서 ‘십자가의 증인들’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고난주간 새벽기도회에서는 이재훈 위임목사가 설교한다. 고난주간 <생명의 삶> 본문이 설교 본문이다. CGN에서는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실황을 생중계한다.

2024 고난주간 새벽기도회에서는 요일별로 다섯 가지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월요일 ‘나라와 민족의 죄’, 화요일 ‘생명 경시에 대한 죄(전쟁, 살인, 인종차별 등)’, 수요일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죄(환경 파괴, 동물 학대, 진화론 등)’, 목요일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한 교회의 죄’, 금요일 ‘거룩과 성결로 살지 못했던 개인의 죄’를 회개한다.

2024 고난주간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는 성도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하고, 예배 전후로 침묵으로 기도한다. 매일 한 끼 이상 나라를 위한 금식기도를 하고, 금식한 금액은 헌금한다. TV, 인터넷, 영화, 게임 등 불필요한 미디어 사용도 자제한다. 교회 로비에서는 나무 십자가에 자신의 죄를 적는 종이를 못 박고 회개하는 의식도 할 수 있다. / 홍하영 기자



### ‘원더풀 라이프’ 세미나

3월 28일~4월 11일 19시 30분

원더풀 라이프 세미나가 3월 28일부터 4월 11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열린다. 은사와 전문성을 활용해서 사역하기를 원하는 60세 이상 성도가 대상이다. 참가신청은 하단 QR 코드나 전화로 하면 된다. 회비는 없다.

원더풀 라이프 세미나에서는 1주차 김형석 명예교수(전 연세대 철학과) ‘그리스도인으로 100년을’, 2주차 김영석 교수(한국교원대) ‘초고령 사회의 모습과 역할’, 3주차 박종길 목사(온누리교회) ‘감사와 비전’을 주제로 강의한다.

‘원더풀 라이프’는 6070 세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은퇴 이후에도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돕는 신생사역팀이다<관련기사 7면>.

문의: 02-3215-3434



/ 김다애 기자 daa2@onnuri.org

A Bold Witness for Christ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하나님은 때로 충격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각성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며 사랑하십니다. 그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때로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랑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일깨우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난 충격적 사건이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성경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은 충격적인 사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에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에서 다른 불을 분향했을 때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가나안을 정복하러 갔을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 중 일부를 도둑질 했을 때 그의 족속이 모두 멸망당합니다. 다윗 시대에 법궤를 모셔올 때 웃사라는 사람이 흔들리는 법궤를 붙잡음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들, 하나님의 엄한 징계가 임하는 일들이 역사 속에서 종종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 시대 백성들을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거짓도 들어오지 않고,  
거룩을 일깨우려는 ‘충격적인 일’**

초대교회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초대교회에 임한 성령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거룩하고, 순결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 공동체가 최대한 거룩을 지키며,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하기에 조그마한 거짓도 들어오지 않도록 거룩을 일깨우려고 충격적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 부부가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는데, 판 값의 일부를 감추고 그것이 전부라고 교회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거짓말의 대가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내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겠다고 헌금한 부부에게 너무 심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거짓의 대가가 얼마나 큰 지를 보여 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 주시기 위해서 충격적인 사건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모든 경우를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루시지는 않습니다. 헌금으로 거짓말 한 대가로 죽는 일을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다루신다면, 역사적으로

## 거룩한 충격, 각성을 일으키다

사도행전 5:1~11

각 교회에서 헌금 시간에 죽는 사람이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충격적인 일을 일반화하지 않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샘 플로 보여 주신 것입니다. 저는 주일학교에서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주일학교 때 헌금으로 과자를 사 먹고 헌금을 내지 않는 사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같은 일을 한 번 이상 저지른 분들은 모두 이 본문에 읽을 때마다 가슴이 떨릴 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이 충격적인 이유는 그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 외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 살펴본 〈사도행전〉 4장에서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헌신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헌신된 이들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에서 리더십 역할을 하는 헌신된 가정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참여한 것은 일종의 특별헌금 성격이었습니다. 4장 후반부를 보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필요를 따라 함께 나누고, 때로 땅이나 집을 팔아서 헌금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소개하는 한 인물이 바나바였습니다. 레위족 사도들이 요셉을 ‘바나바’, 즉 ‘위로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바나바가 헌신한 사건을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한 것은 그의 헌신이 가장 모범적이고, 대표적인 헌신이며, 그러한 영적인 물결을 일으킨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 이후 〈사도행전〉 4장 마지막 구절에 바나바의 헌신과 대조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장절을 다시 구분한다면 저는 〈사도행전〉 5장 1~11절도 4장에 넣겠습니다. 그러면 바나바의 헌신과 아나니아와 삽비라 문제가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이것을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람직한 모델로서 바나바의 헌신을 기록하고, 모두에게 충격을 주고 각성을 주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사건도 있었지만, 충격을 주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책망하는 두 가지 이유**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 자기 것으로 숨겨 두고는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 바쳤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1~2절).

부부가 함께 결정했습니다. 일부를 떼어 숨겨 두고는 전부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떻게 네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네 것으로 몰래 숨겨 놓았느냐?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네 소유였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네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3~4절).

베드로가 책망하는 것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 사단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일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동시에 이 일은 아나니아 스스로 마음에 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전부를 내지 않고 일부는 자신이 가졌다고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은 왜 전부를 안 냈느냐?”가 아닙니다. “전부를 내지 않고 왜 일부를 내었느냐?”가 아니라 “일부를 냈으면서 왜 전부를 냈었다고 거짓말하느냐?”입니다. 베드로가 전부를 헌금하지 않았다고 책망했고, 하나님이 전부를 안 냈다고 그들을 죽음으로 취하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말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당신에게 헌금하라고 강요했느냐? 아무도 강요한 적 없고, 하나님도 강요하시는 분도 아니다. 바나바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고 요청하지 않았지만, 자진해서 기쁨으로 헌신했고, 기쁨으로 모두에게 위로가 되었다. 당신도 그렇게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당신이 얼마를 헌금하든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도 아니고, 땅을 판 것도 당신 소유의 재산이요, 그 중에 아주 작은 일부만 났어도 그것은 당신의 자유다. 문제는 당신이 일부를 내놓고 전부라고 부풀려서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것이 베드로의 책망입니다.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네 소유였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네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요,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유에 맡기신 것입니다. 팔아서 일부만 헌금해도 되는데, 그것이 전부인 듯 포장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위보다 동기를 보신다**

아나니아가 책망을 듣는 순간 쓰러졌고, 죽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로부터 3시간 뒤 아나니아가 그렇게 된 것을 모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짓 없는 사랑, 진리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십시오.  
사탄이 공격할거리가 없는 교회가 되어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으십시오.”

르는 삼비라가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베드로는 삼비라에게 남편에 관한 소식을 전하지 않고 질문했습니다.

“땅을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네. 이뿐입니다.”

그 순간 삼비라 역시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야나니아의 상황을 말해주지 않은 것은 삼비라가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라고 말했다면, 그에게는 기회가 주어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삼비라에게 기회를 주고자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삼비라도 거짓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왜 이 부부가 일부를 내면서 전부를 냈다고 거짓말하는 결정을 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마음을 사탄이 이용하도록 내어줬을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앞서 <사도행전> 4장 바나바의 헌신과 함께 살펴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부부에게 비교의식이 작동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순수한 헌신을 통해서 모두에게 위로를 주고, 존경받고,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바나바처럼 재산의 전부를 내놓은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부를 내놓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서 전부를 내놓은 사람이 되려니 거짓 말하는 방법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바나바의 헌신과 야나니아와 삼비라의 헌신이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내면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야나니아와 삼비라는 실제보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습니다. ‘위선’입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영적으로 헌신하고,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처럼 인정받고 싶었던 위선의 죄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열마를 내놓는지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자유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행위인가보다 어떤 동기인가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사탄의 역사에 경각심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니 나를 아실 것입니다. 내가 앓고 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에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길을 다니는 것과 내가 눕는 것을 아시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살살이 알고 계십니다”(시 139:1~3).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선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엄하게 다루시고, 충격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교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첫째, 초대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고,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에 대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11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더욱 거룩하고 순결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게 하셨고, 그 결과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새롭게 시작한 이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구약의 율법을 제정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시작할 때 나답과 아비후를 엄하게 다루신 것처럼, 다윗 왕국이 새롭게 시작할 때 그를 엄하게 다루신 것처럼, 새롭게 행하시는 시기에 매우 엄하게 다루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엄하게 다루신다는 느낌이 든다면 “내가 하나님 역사의 중요한 시점에서 서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결과 사탄의 역사에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 거짓 없는 진리 위에 세워지고 성장해야

둘째, 교회는 거짓 없는 진리 위에 세워지고 성장해야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 이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후반부를 보면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청결한 마음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벧전 1:22).

진리에 순종함으로 거짓 없는 사랑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거짓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교회가 깊이 깨달을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포장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믿음의 영역에서 잘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고백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온전한 것처럼, 믿음이 좋은 것처럼 포장할 때 그 거짓 속에 세워진 신앙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순에서 자신의 연약함, 때로는 불신과 의심 등을 있는 그대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척하는 관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진리에 함께 순종해 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다른 형태의 사랑과 은혜

셋째, 하나님은 야나니아와 삼비라에게 또 다른 형태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처분이 가혹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지 않도록 먼저 데려가신 것입니다. 유다와 같이 심각하게 망가진 영혼이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취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나니아와 삼비라가 지옥에 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었다면 영원한 죽음은 피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 땅에 오래 있는 것보다 빨리 데려가는 게 그 영혼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또 다른 형태의 은혜를 베푸실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조차 사탄의 공격을 받았다면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령공동체에는 얼마나 많은 영적 공격이 있겠습니까? 외부의 공격은 우리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 일어나는 위선, 거짓, 속임수는 우리를 사탄의 먹이로 내어줍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처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식할 필요 없이 하나님만 의식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의식한다면 자신을 포장할 필요가 없고, 자신을 위선으로 포장할 필요가 없다면 사탄이 공격할거리가 없어집니다. 온누리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거짓 없는 사랑, 진리 위에 세워지는 견고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이 틈타지 못하고, 사탄이 공격할거리가 없는 강건한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 재물

## 영화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막 1:1).

〈마가복음〉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소식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포다. 그리고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통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위해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을 선포한다. 나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았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먼저 길을 곧게 하는 세례 요한, 마침내 그 일을 온전히 십자가에서 완성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여신 예수님,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이 땅의 백성들과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영화의 흐르는 장면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머릿속에 흘러간다. 그리고 생각하게 된다. 영화를 이루는 이 수많은 장면 중에 과연 나는 어디에 들어가 그 영화의 완성을 도울 수 있을까? 필름을 되돌려 내가 과거 한 장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미 그 장면들은 세례 요한을 비롯한 수많은 신앙의 선배가 만들어 놓은 이야기들이기 때문이다. 특이한 점은 아직 이 영화가 완성된 게 아니라 지금도 제작 중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도 앞으로 제작되는 영화

일부분에는 참여할 수 있다.

영화의 절정을 ‘클라이맥스’라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부분이 영화의 클라이맥스가 될 수 있다. 나도 예전에는 이 영화의 절정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영화의 절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 그 이후 이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생각한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이후

살아내는 모습이 영화의 초점이자 절정이다. 이것이 영화 제작자인 하나님의 의도다.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모습이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내가 영화의 클라이맥스를 이루는 장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내가 반드시 그 장면의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인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만들어가는 진정한 삶에 관한 이야기다. 창조주와 태초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한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 이야기다. 그것이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라는 생각을 더욱 확신한다. 결국 내가 이 영화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수많은 주인공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한다. ‘나는 제작자가 꿈꾸는 위대한 영화의 절정을 만들어 가는 주인공 중 하나’라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확신하는 것은 내가 교만해서가 아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창조자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그리스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다. 나는 분명 이 영화의 주인공이다. 그러므로 이 영화의 주인공다운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한다. 영화감독의 의도에 충실한 삶의 장면들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한다. 이 영화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 드린다.



이광순 장로  
(노원공동체)

“영화의 주인공다운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

영화감독의 의도에 충실한 삶을 만들기를 기도한다.”

살아내는 모습이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 같다.

일반적인 영화의 클라이맥스는 짧은 순간을 화려하게 불태우고 사라진다. 관객은 절정의 시련함과 통쾌함을 경험한다. 그런데 이 영화는 그렇지 않다. 절정의 순간이 계속 이어진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을 통해 절정을 만들고, 이어가기 때문이다. 애초에 이 영화가 기획될 때 초점은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삶이 변하고, 진정한 인생을

땅에 보내 대신 죽게 하셨다. 그 부분이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로 기획되었었다면, 이 영화는 이미 끝났어야 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어지는 모습으로 영화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기에 제작자의 의도는 십자가 사건은 클라이맥스가 아니라 영화의 강력한 도입이다.

감독이 기획한 이 영화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 환경보호와 차세대

##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창 1:1).

〈창세기〉1장 1절은 성경을 시작하는 말씀이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 태초라는 단어에서 ‘시간’을, 하늘이라는 단어에서 ‘공간’을, 그리고 땅이라는 단어에서 ‘물질’을 만드셨음을 알 수 있다. 그 이후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 〈창세기〉1장에서 언급된 물과 빛, 대기, 바다, 식물, 해, 달, 별, 물고기, 새, 육지의 동물들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완벽한 조건을 제공한다. 우리가 호흡하며 살 수 있는 적절한 온도와 그 외의 환경 역시 완벽한 조건을 제공한다.

만약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질서가 깨진다면, 인간은 호흡하며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이다. 한 가지 예로 바닷물은 지구의 온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온실가스 증가로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서 물의 부피가 팽창하고, 해수면의 높이도 올라가게 된다. 또한 학자들에 따르면, 온도 상승에 따른 환경 변화는 많은 종류의 나무와 생명체를 사라지게 한다. 고온 지역은 환경 변화가 더욱 확대되어 더운 공기를 좋아

하는 모기와 해충들이 확산해 인간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 스리라’ 하셨습니다”(창 1:28).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특별한 임무를 맡기셨다. 자녀를 많이 낳

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몇 해 전부터 목회사관학교에 입소할 때 준 비물이 늘었다. 물을 먹을 수 있는 컵이나 텀블러를 개인이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이다. 따뜻한 차(Tea) 온도를 유지하기 위함이 아니다. 페트(PET)병 사용을 줄이고, 버려지는 물을 아끼려는 차원이다. 좋은 의도는 알지만, 컵과 텀블러를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됐던 이전에 비

“온누리교회 차세대가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기를 바란다.”

아 번성하는 것,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맡기신 정복과 다스림은 군림이 아닌 가꾸는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에게 맡겨진 사명이다.

그러나 인간은 이 사명을 망각하고 말았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연을 가꾸지 않고, 입맛에 맞게 이용하기만 했다. 인간은 한계가 있어서 자신에게 편한 것을 선택하게 된다. 하지만 하

하면 불편하다. 아마 혼자 하는 일이었다면 한쪽 눈을 감고 모른 척하며 페트(PET)병을 사용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두가 동참하는 일이기에 그 의미를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며 기꺼이 동참한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가 다 함께 의지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이다. 환경교육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교육이다. 동시에 하나님이 맡기신 만물을 적극적으로 아름답게 가꾸는 사명교육이자 헌신교육이다. 온누리교회 차세대에서는 몇 해 전부터 사순절에 성경을 필사하고 있다. 올해는 사순절 성경쓰기 노트에 사회선교본부에서 진행하는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바이 바이 플라스틱’을 소개하고, 매일 가정에 전달하는 성경 필사 공지에도 ‘바이 바이 플라스틱’ 내용을 적어서 안내하고 있다. 교육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의도적이며, 동시에 의지적이어야 한다. 다음세대가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와 가정에서 많이 노력해야 한다.

온누리교회 차세대가 사순절 성경 쓰기와 창조질서 회복캠페인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이 맡기신 환경보호의 사명을 실천하기를 기대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기를 기도한다.



노희태 목사  
(차세대사역본부장)

# “바이 바이 플라스틱!”

## 플라스틱 줄이기, 자연과 몸을 보호하는 몸부림!



김진수 집사  
(노원공동체,  
한국원자력학원 박사)

온누리교회가 3월 31일까지 2024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 캠페인 ‘바이바이 플라스틱’을 진행한다. 3월 8일부터 3월 30일까지는 ‘실천하기’ 기간이다. 이 기간에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을까?’를 주제로 실제 일상에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많은 성도가 교회 캠페인이니 열심히 참여하겠다는 마음 혹은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면 쓰레기 배출량이 줄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으니 뭔가 좋은 일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으로 동참하고 있는 듯하다. 그 좋은 마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다면 좋겠다. 플라스틱이 무엇인지, 인체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실천하면 더 뜻깊을 것이다.

### ‘플라스틱 시대’와 심각한 플라스틱 오염도

주변을 둘러보면 플라스틱 아닌 게 거의 없다. 스마트폰 앱에서 클릭 한 번만 하면 집까지 맛있는 음식이 배달되는데, 음식이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있다. 운동하고 시원하게 마시는 이온음료도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 떠먹는 요거트도 플라스틱 용기이고, 라면 봉지, 핫반 용기도 플라스틱이다. 뿐만 아니라 타이어, 좌석 시트, 카펫, 펜더(fender) 등 자동차 부품 대부분 플라스틱이다.

2021년 발표된 통계 기준에 의하면, 한국인 1인당 플라스틱 연간 소비량이 생수병 109개(1.6kg), 비닐봉지 533개(10.7kg)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을 사용하는지 가늠할 수 있는 수치다. 바야흐로 우리는 플라스틱 시대에 살고 있다.

플라스틱은 화학공업의 발전과 더불어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재료로 함께하게 되었다. 금속이나 도자기에 비해 가볍고, 착색이 자유롭고, 무엇보다 다른 재질보다 저렴해서 대량 생산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 아는 플라스틱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틸렌, PET, PVC 등이다. PET는 말 그대로 페트병이다. 우리가 마시는 생수병, 음료수병 재질이다. 폴리에틸렌은 세제나 샴푸 용기로 사용된다. PVC 파이프는 너무 익숙해서 고무줄사 같은 용어다. 우유팩, 종이컵 내부의 코팅제는 폴리에틸렌이다.

몇 년 전 서울, 부산, 광주 등 국내 어시장에서 획득한 굴, 담치, 바지락, 가리비 등 패류(貝類) 조직에서 폴리스티렌, 폴리프로필렌, PET



재질, 100~500마이크로미터( $\mu\text{m}$ ) 크기의 플라스틱이 검출된 바 있다(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17년). 머리카락 굵기가 80 $\mu\text{m}$  정도이니 대략 머리카락 굵기 정도의 플라스틱이 우리 식탁에 올라온 패류에서 발견된 것이다.

한국 연안 해수 표층에서 플라스틱 오염도를 측정했는데, 1리터(l)당 평균 1.82개, 최대 7.9개의 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 이는 중국의 10당 최대 6.44개를 상회하는 수치이다(국립수산과학원 2023년). 시중에 판매하는 해양생물을 대상으로 미세플라스틱 오염 정도를 확인했는데, 새우 1그램(g)당 플라스틱 입자가 0.17±0.03개였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18). 마트에서 살 수 있는 대하 무게가 한 마리당 대략 25g 정도인 것을 생각하면, 대하 한 마리당 대략 4개의 플라스틱 입자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 플라스틱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은’ 일상

플라스틱이 어떻게 새우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크기 5밀리미터(mm)이하 플라스틱을 ‘미세플라스틱’이라고 지칭한다. 미세플라스틱은 기존 플라스틱 제품이 자외선, 풍화작용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잘게 으스러진 작은 조각들을 의미한다. 베란다 책꽂이의 책을 포장한 비닐이 시간이 지나면 하얀 가루처럼 으스러져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미세플라스틱이다. 미세플라스틱은 세탁과정에서도 발생하고, 운행 중인 자동차 타이어에서도 발생한다. 건조기를 돌리고 문을 열 때 뜨거운 공기와 함께 많은 양의 미세플라스틱이 뿜어져 나올 수도 있다. 제주도 여행을 하던 중에 청정구역인 용머리해안가에 밀려든 플라스틱 생수병을 보고 마음 아팠던 적이 있다. 바닷가에 쓰레기로 버려진 플라스틱 생수병이 잘게 으스러진 다음 새우의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인간이 그 새우를 먹으면 플라스틱도 함께 먹는 것이다.

5mm 미만 크기의 플라스틱이 미세플라스틱으로 정의되고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5mm 정도의 플라스틱보다 위험할 수 있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이크로, 나노크기

의 플라스틱이다. 마이크로미터( $\mu\text{m}$ )는 1mm의 1/1,000에 해당하고, 나노미터(nm)는 1마이크로미터( $\mu\text{m}$ )의 1/1,000에 해당한다. 1nm는 머리카락 10만분의 1 크기에 해당하는 단위다.

해양 생물체뿐만 아니라 사과 등의 과육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된 바 있다. 농사에 사용되는 비닐하우스 등 플라스틱 제품이 토양을 오염시키고, 토양에 존재하던 미세플라스틱이 뿌리를 타고, 사과 과육에 박혔음을 유추할 수 있다. 대기도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어 있다. 프랑스 피레네 지역에서 포집한 공기에서 하루 1m<sup>3</sup>당 평균 365개의 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 이 지역은 마을에서 6km 떨어진 해발 1,425m의 청정지역이었기에 그 결과가 더욱 놀랍다.

최근 한 연구에 의하면, 플라스틱 생수병 10에 24만 개의 미세플라스틱이 들어있다(미국 국립과학원회보 2024). 이는 계속 기술의 발전으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어서 기술이 발전할수록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미세플라스틱이 우리를 오염시키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환경은 이미 플라스틱에 오염되었다. 우리의 일상은 플라스틱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우리는 플라스틱을 먹고 마시고 있다.

### 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사람이 플라스틱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5년 전 오스트리아, 핀란드, 일본, 이탈리아, 네덜란드, 러시아, 폴란드, 영국 등 8개 나라 자원자로부터 일주일 동안 대변을 채취해서 플라스틱 유무를 관찰했는데, 놀랍게도 모든 사람의 대변에서 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 대변 10g당 최대 172개의 플라스틱 조각이 발견되었다.

건강한 성인 22명의 혈액에서 미세플라스틱을 계속한 실험도 있었다. 그 결과 17명의 혈액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 생수 및 음료수병에 주로 쓰이는 PET 및 일회용 용기에 많이 쓰이는 폴리스틸렌이 많이 검출되었다. 최대 7.1 $\mu\text{g}$ 의 플라스틱이 검출되었는데, 이를 60kg 성인의 혈액량에 존재하는 플라스틱 양으로 환산하면 대략 68mg에 해당한다. 산모의

태반 조직에서도 플라스틱이 검출되었고, 죽은 사람의 폐에서 플라스틱이 존재함이 확인된 바 있다. 무심코 버리는 플라스틱이 이미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글쓴이는 플라스틱이 생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해 왔다. 굴, 조개 등을 먹는데는 것은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플라스틱을 먹는 것이기에, 플라스틱을 먹었을 때 생체 내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연구했다. 실험용 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플라스틱 투여 후 1시간 이내에 전신으로 퍼져 나가고, 심지어 뇌로도 플라스틱이 이동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실험용 쥐를 대상으로 흡입 및 흡수 경로를 연구했는데, 20nm 크기의 플라스틱의 경우 200nm 크기의 플라스틱보다 뇌로 더 많이 들어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많은 연구에서 미세플라스틱이 자폐스펙트럼장애를 유발할 수 있음과 암 치료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 글쓴이의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자가 미세플라스틱이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치매 등 뇌 질환 유발 가능성을 제시했고, 수유 과정 중에 모유를 통해 플라스틱이 아기에게 전이될 수 있음도 발견하였다. 물론 이 모든 실험은 쥐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독성 연구를 위하여 고농도 플라스틱을 노출한 결과이다. 따라서 사람에게 동일한 영향이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하지만 인체에서도 지속적으로 플라스틱이 발견되고 있기에 그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실험의 경우 대부분 구(球)형의 플라스틱을 사용하는데, 실제 환경 플라스틱은 실 모양의 뾰족한 형태여서 세포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클 수도 있다. 플라스틱 제조 과정에서는 비스페놀 A, 프탈레이트 등 첨가제가 포함되고, 자연환경에서는 중금속, 약품 등이 플라스틱에 흡착될 수 있기에 실제 환경에서는 실험에서 얻은 결과보다 그 위험성이 가중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은 단지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 날 플라스틱 양을 줄이는 캠페인 정도가 아니다. 우리 몸에 이미 파고 들어 떠다니는 플라스틱을 줄이는 캠페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맛있는 클램차우더(Clam chowder) 수프를 먹는 것이 플라스틱 수프를 먹는 것이라는 상상을 해본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미 우리는 플라스틱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다. 익숙해진 플라스틱로부터 쉽게 결별할 수 있을까? “바이 바이 플라스틱!”을 외치며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자. 일상에서 내가 두 번 쓰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한 번으로 줄이는 단순한 실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텀블러, 장바구니 등을 사용하는 단순한 실천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몸부림이어야 할 것이다.

NGO 더멋진세상 대표 김광동 장로와 함께

# “함께, 더 멋진 세상 만듭시다!”

## 16~17일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 약정행사’



전 세계 37개국에서 가난과 질병,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섬기는 NGO 더멋진세상이 함께 ‘더 멋진 세상’을 만들어 갈 친구들을 찾는다.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 약정행사가 3월 16일(토)과 17일(일) ‘너와 내가 만드는 더 멋진 세상’을 주제로 열린다. 이날 온누리교회 모든 예배에서 나눠주는 정기후원 약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전화(02-2271-2246) 또는 NGO 더멋진세상 홈페이지(abetterworld.or.kr)에서 참여하면 된다.

NGO 더멋진세상은 전 세계를 다니며 도움이 필요한 지구촌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 주고 있다. 깨끗한 물이 필요한 곳에 우물을, 주민들의 자립을 돕는 작업장을, 생명을 살리는 의료시설 건축 및 약품 지원을 하고 있다. 말 그대로 지구촌 이웃들에게 더 멋진 세상을 선물하려고 1년 365일 밤낮없이 뛰어다닌다. NGO 더멋진세상 김광동 장로에게 정기후원 약정행사의 의미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김광동 장로와의 일문일답.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 약정행사 ‘너와 내가 만드는 더 멋진 세상’이 열립니다. 이 행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NGO 더멋진세상은故 하용조 목사님의 비전과 의지로 2010년 창립한 국제개발 NGO입니다. 지난 14년 동안 NGO 더멋진세상은 전 세계 37개국에서 강도 만난 자, 굶주린 자, 아픈 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NGO 더멋진세상을 후원해 주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성원 덕분에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NGO 더멋진세상과 함께 지구촌 곳곳에서 더 멋진 세상을 만들어 가는 성도님들께 이 지면을 빌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 약정행사를 준비하면서 이 사역은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변함없이 함께 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더욱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NGO 더멋진세상의 모든 활동은 성도님들의 후원금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더불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비롯한 정부 기관, 국제기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업들과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NGO 더멋진세상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려면 성도님들의 정기후원 약정이 꼭 필요합니다. 성도님들이 정기후원 약정해 주신 금액의 세 배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후원금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나라와 이웃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 행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인도주의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하는 선교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NGO 더멋진세상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긴급구호와 난민지원에 집중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해는 전 세계적으로 유난히 지진, 태풍, 전쟁 등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인해 난민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NGO 더멋진세상은 주저함 없이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건넸습니다. 튀르키예 지진 현장을 세 차례 방문해서 8인용 텐트 5천 개를 세웠고, 지진 피

해자들에게 식량과 옷가지 등을 지원했습니다. 또 몇 년째 이어지는 전쟁으로 발생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기 위해 난민촌을 루마니아에서 2곳, 몰도바에서 3곳 운영하고 있습니다. 레바논과 요르단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과 우간다에 있는 남수단 난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구호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현지 선교사들과 협업해서 난민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있습니다. 우간다와 남수단에서는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풍성한 열매는 NGO 더멋진세상의 활동을 국가에서 인정 받은 것입니다. NGO 더멋진세상 실행위원 노정숙 집사가 ‘제18회 KOICA 외교부 장관 표창 대한민국 해외봉사상’과 ‘가톨릭의대봉사상’을 수상했고, 봉사단원 심예찬 자매는 ‘제1회 외교부 대국민 공공외교 우수사례 공모전 UCC부문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NGO 더멋진세상과 함께 뛰며 헌신한 봉사단원들과 실행위원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NGO 더멋진세상이 만들어 갈 ‘더 멋진 세상’이 기대됩니다. 올해는 어떤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올해 NGO 더멋진세상은 강도 당한 이웃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긴급구호에 더욱 힘을 계획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생한 난민들을 돕는 사역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이 종료되는 대로 그곳에서의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집중했던 NGO 더멋진세상의 사역을 중남미로 확장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긴급구호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NGO 더멋진세상이 지난 2020년부터 글을 읽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은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서 ‘공동체 성경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공동체 성경읽기를 위한 스피커를 지원하고, 리더십 수련회를 개최해서 성경읽기에 대한 도전을 했습니다. 양육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영성 발달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도모했습니다. 2020년 9개 교회 성도 200여 명이 공동체 성경읽기에 참가했는데, 그 프로젝트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13개 종족어로 16개 지역에서 공동체 성경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138개 교회에서 소그룹 200개를 만들어 공동체 성경읽기를 하는데 성도 4천여 명의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사역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NGO 더멋진세상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해주시지요.”

**NGO 더멋진세상과 함께 ‘더 멋진 세상’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NGO 더멋진세상과 함께 ‘더 멋진 세상’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기후원 약정행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는 성도님들의 사랑과 관심이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NGO 더멋진세상과 함께 선교지에 가서 지구촌 이웃들을 섬길 분들도 필요합니다. NGO 더멋진세상 봉사단원 및 장단기 선교사 모집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자세한 모집 공고는 NGO 더멋진세상 홈페이지(abetterworld.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NGO 더멋진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용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NGO 더멋진세상 중보기도모임이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카페에서 진행됩니다. NGO 더멋진세상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소명으로 일하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지혜를 더해주시도록 함께 기도해주시지요.”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 NGO 더멋진세상을 만난 사람들

#### “제 삶을 바꿔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 르완다 가혼도 마을에 사는 클레멘타인입니다. 무하지 러브브릿지교회 성도입니다. 제 삶은 여러 가지 이유로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제 마음의 병을 치유해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NGO 더멋진세상에서 설립한 무하지 러브브릿지교회에서 저희 가정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성도님들이 제 손을 잡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치유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서 이제껏 알지 못했던 기쁨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제 삶을 바꿔주신 증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욕설, 도둑질, 부도덕한 육신의 행위를 모두 버렸습니다.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무하지 러브브릿지교회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NGO 더멋진세상에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NGO 더멋진세상은 교회를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재봉 기술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옷을 만들 수 있고, 가족들에게 입힐 수 있습니다. 제 삶을 바꿔준 NGO 더멋진세상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클레멘타인(르완다 가혼도마을 주민)

신생사역팀을 소개합니다! '원더풀 라이프'

# 사역에는 결코, 은퇴가 없다!

## 6070 세대를 위한 '원더풀 라이프'

총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 인구가 약 19.2%를 차지하는 '고령사회'다. 내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한다. 고령화 현상의 여파를 교회도 피해 가지 못한다. 하루빨리 교회에서도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야 한다. 사회선교본부 신생사역팀 '원더풀 라이프'가 출범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6070 세대를 위한 사역팀 '원더풀 라이프'를 소개한다.

/ 김다애 기자 daa2@onnuri.org

이제는 노년 세대를 '제2의 주일학교'라고 부른다. 그만큼 교회에 고령 성도가 많고, 계속 늘고 있다. 온누리교회만 해도 60세 이상 64세 이하 성도가 약 1만 4천여 명, 65세 이상 90세 이하 성도가 약 1만 8천여 명이나 된다. 시니어 성도가 3만 명에 이른다. 더 무서운 변화는 사회도, 교회도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다.

70세가 되면 사회에서 대부분 은퇴한다. 교회에서도 70세가 되면 공식적으로 맡은 직분에서 은퇴한다. 그런데 직분에서 은퇴한 이후에도 여전히 섬길 힘이 있다. 시간과 물질을 충분히 드려서 섬길 수 있다. 사역에는 결코 은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은 마음과 다른 것 같다.

목회데이터연구소에서 만 65세 이상 성도 2천여 명을 대상으로 '고령 교인 실태조사'를 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시니어 성도 38%가 '젊은 사람이 모인 곳에 가면 스스로 위축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22%는 '교회에서 나에게 관심이 멀어지는 것 같다'고 응답했다. '고령 성도 10명 중 1명이 우울 증상을 보인다'는 결

과도 있다. 현재 한국 교회에서는 시니어 성도들이 직분 혹은 사역에서 은퇴한 이후 역할이 없어서 외로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다. 아직 사역을 감당할 체력과 능력이 충분한데 말이다. 직분 혹은 사역에서 은퇴했다는 이유로 소외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신생사역팀 '원더풀 라이프'가 그래서 출범했다. 6070 성도들이 교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도록 돕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동안 은퇴 이후 역할을 찾도록 도왔던 '은빛날개' 사역이 막을 내리고, '원더풀 라이프'가 새로만 들어졌다.

'원더풀 라이프'는 6070 세대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경험, 전문성을 살려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돕는 사역팀이다. 6070 세대들이 교회에서 그 아름다운 역할을 이어가도록 방법을 모색 중이다.

심리학자 에릭슨은 노년을 3단계로 구분했다. 65세 이상 74세 이하를 노년 초기, 75세 이상 84세 이하를 노년 중기, 85세 이상을 노년



말기라고 정의했다. 현재 온누리교회에는 노년사역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원더풀 라이프'와 '시니어아카데미'다. '원더풀 라이프'는 노년 초기, '시니어아카데미'는 노년 중기를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다.

사회가 고령화하는 만큼 교회에도 시니어 성도가 계속 증가한다. 이에 발맞춰 노년사역의 역할과 필요성이 매우 크고 중요해졌다. 노년 세대가 교회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도록 돕는 구체적인,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바로 그 역할을 '원더풀 라이프'가 감당한다. 6070 세대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여러 사역팀과 협력해서 사역을 이어가도록 연결한다. 전도, 농어촌 선교, 이주민 선교, 탈북민 선교, 2000선교 등 사역팀과 연결하고, 일대일제

자양육, 큐티, 가스펠프로젝트 등 양육사역에도 참여하도록 돕는다. 배드민턴, 탁구, 골프, 독서, 노래, 미술, 악기 배우기 등 6070 세대 성도들의 관심 분야를 파악해서 여러 취미활동을 할 예정이다.

'원더풀 라이프'에는 6070 세대 성도 중에서 교회에서 계속 사역하기를 원하는 성도, 그동안 사회생활에 전념하느라 사역을 해본 적 없지만, 은퇴 이후 새로운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싶은 성도, 교회에서 친밀한 친구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시니어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는 3월 28일부터 4월 11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열리는 '원더풀 라이프 세미나'에 참가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준다. 문의: 02-3215-3434

### 사역칼럼



심길섭 장로  
(강촌공동체, 원더풀 라이프 담당)

인생의 후반을 교회와 함께하는 성도들의 삶이 '원더풀 라이프'다. 인생의 황금기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도록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와 함께 나이 들어가는 성도들이 위축되거나 소외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영적 라이프 사이클을 늘려야 한다. 나이가 들면 사회에서 은퇴한다. 교회에서도 모든 직분자가 공식적으로 70세에 은퇴한다. 그러나 은퇴 후에 남은 세월이 참 길다. 그 시간 동안 후배 성도들의 섬김을 받기만 할 수는 없다. 나이 들수록 더욱 의미 있는 활동을 해야 한다.

시니어 성도들은 한국 교회 발전의 주역들이

다. 고난을 경험했고,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낸 세대다. 가정과 사회에서 부모님 잘 모시고, 자녀들을 잘 양육했던 국가 발전의 초석이었다. 그들이 사회에서 역할을 다하고 더는 설 곳이 없어지는데, 교회에서마저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6070 세대가 되어도 건강하다. 가지고 있는 소중한 믿음과 지혜, 경험과 지식을 그냥 두기가 너무 아까운 게 사실이다. 6070 세대는 시간과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서 섬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교회에 점점 늘어나는 시니어 성도들이 위축되거나 소외당하지 않고, 생명과 호흡이 있는 날까지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야 한다.

먼저, 목회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세대 간 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세대 간 단절에서 오는 이질감이나 갈등으로 시니어 성도들이 교회에서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 설 자리가 좁아진 기성세대가 '원더풀 라이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감

### 은퇴를 은퇴하십시오!

당하며 마음껏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김형석 명예교수(연세대학교)는 "주위 사람들을 보니 60~75세 무렵에 가장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시기를 보낸다. 좋은 책도 바로 그 시기에 썼다"고 말했다.

교회에도 초고령화 현상이 시작되었다. 2028년이 되면 한국 교회를 이어가는 주력 세대가 60~70세가 된다고 한다. 고령화된 한국 교회는 우리 앞에 실존하는 문제로 다가왔다. 비켜 갈 수 없는 현실이다. 하나님은 시니어 성도들을 소명의 일꾼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 시니어 성도들은 부흥의 시대를 경험했고,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본 세대다. 신앙의 연륜이 쌓여있고, 시간과 몸을 드리는 여유도 있다. 부르심을 따라 물질을 드려 섬기고 싶은 헌신도 있다.

교회는 시니어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게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시니어 성도들을 그냥 나이 들게 해서

안 된다. 그들이 부르심을 따라 살도록 믿음으로 교육하고, 훈련 시켜서 영적 라이프 사이클을 연장해 줘야 한다.

모세는 80세에, 갈렙은 85세에 부르심을 받았다. 시니어 성도들도 나라와 민족과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해 다음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한다. 하나님이 시니어 성도를 위해서 준비하신 '제2의 부르심'을 받고, 주체적으로 일어나 부흥을 감당하는 세대가 되어야 한다.

세상에 노인이 많아지고, 개인의 삶에서 노년기가 더욱 길어지고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지혜로운 어른들이 많아져서 다음세대에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다. 어른은 지혜로운 사회의 주인공이다. 노년 초기에 존경받는 어른으로 살도록 교회에서 교육받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면서 기쁨 부으심이 넘치는 축복을 받기를 바란다. 그러면 노년 중기와 말기에도 존경받는 어른으로 세워질 수 있다. 6070 세대가 은퇴를 은퇴하는 원더풀 라이프를 소망한다.

## 멘토가 멘티에게

##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

“저는 습관적으로 자꾸만 미루는데 게으름도 죄인가요?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을까요?”

단순히 어떠한 일을 미루는 것 자체로 ‘죄’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미루는 게 습관이 되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게으름으로 발전한다면 이는 ‘죄’로 간주 된다.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맡긴 달란트로 장사해서 이문을 남긴 종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주인이 맡긴 달란트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불리며 맡겨진 한 달란트조차 빼앗긴 채 바깥으로 쫓겨나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전에 따라 때가 있으니”(전 3:1).

“그 날짜와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정신을 바짝 차리라! 항상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막 13:32-33).

게으름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먼저 시간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일을 자꾸 미루는 마음의 뿌리에는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은 욕망과 자의식이 숨겨져 있다. 나의 존재와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 또한 그 섭리 안에 있음을 알게

게 하셨다. 그리하여 다윗은 참된 마음으로 그들을 먹이고 능숙한 솜씨로 그들을 인도했던 것이다”(시 78:70~72).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싶다면  
할 일을 미루지 말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아야 한다. 사소하고 작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일에 대한 바른 자세와 태도를 갖추기를 원하시고, 잠재력이 발휘되기를 원하시며, 실력이 쏠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훈련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또한 다윗을 선택해 그분의 종으로 삼으셨고 그를 양 우리에서 끌어내 새끼를 둔 어미 양을 치던 그를 불러 그분의 백성 야곱을, 그분의 소유 이스라엘을 치는 목자가 되

고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들판으로 일꾼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라’”(마 9:35~38).

하나님께서 맡겨진 영역에서 그 사람에게 부여된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일꾼을 찾고 계신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상황에 매여서 주어진 일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씨름

하고 있을 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라며 애통해하시는 하나님의 시름이 더욱 깊어질 것이다. 하나님께 충성되고, 반복된 훈련을 거쳐 숙달된 솜씨를 지닌 한 사람의 등장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애끓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고 싶다면 더는 할 일을 미루지 말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하루의 삶을 내 생각과 감정,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 뜻으로 살아내도록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구하는 기도로 준비하라.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빌립보서> 4장 6~7, 13절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우리가 게으름의 탓에 걸려 넘어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자리를 털고 일어나기를 바란다.



김정은 멘토  
(허브대학부)

##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 ‘불안’을 인정해 주고, 잘 들어주기!

불안은 마음의 긴장감, 두려움, 불안정 등을 포함한 심리적 상태를 말한다. 불안은 보편적으로 누구나 비슷한 상황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반응이다. 개인적인 과거의 사건에 기인해서 불안감을 느끼거나 주관적인 생각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경험할 수도 있다. 보편적인 면과 개인적인 면이 함께한다. 불안은 부부 관계에서 긍정적이지 않은 상호작용을 일으킨다. 배우자가 불안을 느낀다면 그 불안의 영향력이 개인적인 면에 그치지 않는다. 불안은 언어적, 비언어적 소통으로 누군가에게 전달된다. 불안의 문제가 파동을 일으키면서 가까운 사람에게 전달되고,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상호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감정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긍정성과 행복감을 증대시킨다. 아무 이유가 없더라도 즐거워하는 아내를 보면 남편도 행복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행복감과 미소는 배우자를 거쳐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상호순환을 하게 된다. 반대로 우울과 슬픔같이 부정적인 감정을 가까운 사람에게 쏟아내면 그 감정이 배우자의 마음을 지나 다시 자신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상호작용이 늘 같은 감정으로 순환되지는 않는다. 비록 배우자가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무너뜨리는 불안, 우울한 감정을 전달했어도 어떻게 그 감정을 받아주고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긍정적인 상호작용으로 바꿀 수도 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자신의 마음에서 요동치는 불안과 걱정을 털어놓았을 때, 듣는 배우자의 대처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배우자의 불안한 마음을 잘 들어주고 진지하게 여겨주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불안을 느낀다. 일반적으로 느끼는 불안이 있고, 개인의 특별한 경험에 기인해서 느끼는 불안도 있다. 일반적으로 느끼는 불안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공통의 범주에 속해 있기에 다행히 어렵지 않게 다룰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 경험이나 감정에 기인한 불안에 대해서는 듣는 사람의 의지와 마음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꼭군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사람이라면 어른이나 권위자를 대할 때 심한 불안을 느낄 것이다. 비슷한 환경에 처하면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한다. 때로 배우자가 과거 자신을 학대했던 아버지와 같은 모습을 보이면 극심한 불안감이 몰려오게 된다. 양육 환경 외에도 인간은 자라면서 다양한 불안을 느끼게 된다. 어린 시절 자전거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한 사람은 그 사건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동차를 보면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서 운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한다. 어린 시절 교통사고의 기억이 여전히 불안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우자의 불안감은 부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누구나 자동차를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교통사고와 같은 사건이 선행하게 각인된 사람에게 운전은 자신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든 경험이다.

부부가 느끼는 불안의 상황이 매우 다양하다. 그 강도도 다양하다. 자신이 느끼는 불안을 배우자는 전혀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같은 상황이라도 그것을 대하는 마음의 부담도 다를 수 있다.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해!”, “쓸데없는 것을 걱정한다”와 같이 대화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배우자의 불안한 마음을 조심스럽게 대해야 한다.

배우자가 불안을 느끼고, 그 불안을 말로 표현했을 때 인정하고, 공감해 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 배우자가 충분히 불안할 수 있다고 인정해 줘야 한다. 당신이 독특하거나 특이한 불안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편견을 주면 안 된다. 배우자의 불안에 대해서 세세히 들어주고, 인정해 줘야 한다. 배우자가 경험한 불안의 역사를 들어줘야 한다. 화제를 급하게 선회한다면 너무 사소한 일로 불안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면박을 주기보다 왜 심하게 불안을 느끼는지 충분히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놀라운 것은 특별한 대답을 주지 않아도 자신의 마음을 충분히 표현하고 나면 자신도 모르게 불안의 문제가 사라지거나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부정적인 영향력이 작아진다는 것이다. 인정해 주고, 잘 들어주는 것만큼 강력한

치료적 접근도 없을 것이다. 자신이 매우 열등하거나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충분히 불안을 가질 수 있다는 배우자의 인정과 지지가 회복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부부는 서로가 경험하는 특별한 불안을 함께 다뤄야 한다. 긍정적인 감정을 소중하게 다뤄야 하듯이, 불안한 감정들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의미에 관해서 서로 깊이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배우자의 마음에 상처와 서운함이 남지 않도록 불안에 대해서 깊이 의사소통하는 게 필요하다. “그 불안에 대해서 더 충분히 이야기 해줘!”, “당신이 불안해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어!”라고 말해주는 게 필요하다.

부부가 서로의 불안을 다루는 목표는 불안에 관한 내용을 금기어로 만드는 게 아니다. 충분히 불안의 역사에 대해서 나누도록 도우면서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불안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의 강함을 부러워하기보다 불안에서 회복되어 가는 사람의 내면을 더욱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부부는 함께 회복의 과정을 밟아가는 관계여야 한다.



황규복 목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 맛있는 말씀 해설

## “네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막 10:21)

종교적 열심을 가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기 위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까?”(막 10:17)라고 질문한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막 10:21)”고 답하신다. 이 말씀은 물질을 포기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청년의 질문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신 것이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막 10:27).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이 곧 제자의 길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마 16:24)”고 말씀하셨다.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기 부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다. ‘자기 부인’의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영적인 존재이시다. 그런데 우리의 구속을 위해 사람이 되심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셨다. 그리고 어린 양의 제물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셨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 부인을 통해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스스로는 그 어떤 노력으로도 ‘자기 부인’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기 부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기에 죽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나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에서 나올 수 없다. 나의 정체성이 부인되고, 새로운 정체성을 입기 위해서는 나의 정체성을 초월하는 하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

바울은 ‘자기 부인’을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갈 2:20)”이라고 표현했다. 또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전 15:31)”고 고백한다. ‘자기 부인’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자기 부인’ 없는 사랑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 있다. 자녀를 위해 죽음마저 불사하는 부모의 숭고한 사랑도 ‘자기 부인’과는 거리가 멀다. 부모의 정체성이 희생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불교 등에서 주장하는 자기를 비우는 것도 ‘자기 부인’이 아니다. 비움의 목표가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 자신이 신이 되거나 신과 하나가 된다는 허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자살처럼 자신을 실제로 죽이는 행위는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파괴다. 죽음도 자신의 정체성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물질주의와 진화론에 사로잡힌 세상은 ‘자기 부인’을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오직 육체와 물질만으로 모든 것이 설명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의 감정도 화학물질의 작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과 관련된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설명하는 기묘한 주장을 사람들은 과학이라고 부른다.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 존재임을 부인하기 때문에 과학이 도리

어 실재를 왜곡하고 있다.

‘자기 부인’은 오직 영적인 존재인 인간만이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영적 실체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자기 부인’을 통해 제자의 정체성을 입었다면 삶의 주어가 달라진다. 부자 청년은 ‘내가’라는 주어로 질문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이 주어가 된다. 나는 단지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순종한 ‘물 떠온 하인’과 같은 기적의 증인일 뿐이다. 삶의 주어가 바뀌면 삶에서 일어나는 고난과 결핍도 영광이 된다. 이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자기 부인’을 통해 진정한 나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한다.



이은일 장로  
(성동광진공동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 두려움의 탄식에서 믿음의 찬양으로

3월 18~24일  
(시편) 55:16~61:8



**묵상포인트 1:**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짐을 함께 져 주시는 분이다. 절망 속에서 우리의 짐을 맡기며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다윗은 수많은 곤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간청하며 눈물로 부르짖었다. 그리고 위기 때마다 더욱 견고한 믿음의 리더로 성장해 갔다. 힘든 상황에서 마음을 확정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다윗을 보며 고난 가운데 성도가 지닐 태도를 묵상하자.

55편: 〈시편〉 기자는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대적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을 확신한다. 하나님은 손을 들어 동료를 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낮추실 것이다. 〈시편〉 기자는 “네 집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권면하며 자신도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고백한다.

56편: 56편의 표제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다. 〈시편〉 기자는 원수가 그를 삼키려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한다.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그는 혈육을 가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을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께 서원의 감사제를 드리겠다고 고백한다.

57편: 57편의 표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다. 〈시편〉 기자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겠다고 선언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간구한다.

**묵상포인트 2:**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시편〉 기자는 환난 날에, 마음이 약해질 때, 실패했을 때 믿음의 선택을 한다. 그는 강해 보이는 악인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 고통 속에서도 전능하신 주권자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결국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편〉 기자의 믿음을 묵상하자.

58편: 58편은 악행을 일삼은 통치자들을 책망하는 시다. 〈시편〉 기자는 악한 통치자들을 꺾으시고, 소멸시켜 달라고 간구한다. 의인은 악인의 결말을 보고 기뻐할 것이며,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고백할 것이다.

59편: 59편의 표제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다. 〈시편〉 기자는 이유 없이 생명을 해하려는 자들에게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들을 낮추시기를 간구한다. 그는 자신의 힘과 요새요, 환난 날의 피난처이며,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60편: 60편의 표제는 ‘다윗이 ... 싸우는 중

에 요압이 돌아와 예물을 ... 쳐서 만 이천 명을 죽인 때에’다. 〈시편〉 기자는 과거에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셔서 자신들이 패배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회복시키시기를 간구한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 용감히 행할 때 대적을 물리칠 것을 확신한다.

61편: 〈시편〉 기자는 마음이 약해질 때 자신의 피난처요,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는 자신의 서원을 들으시고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안위와 보호를 구한다. 그리고 자신이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매일 서원을 이행하겠다고 고백한다.

## - 적용을 위한 가이드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짐을 그분께 맡기기를 원하신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의지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자. ▶위기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문제 해결자 되심을 기억하자. ‘두려움의 탄식’에서 ‘믿음의 찬양’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가정과 교회, 직장의 리더로서 내게 불의한 면이 없는지 점검하자. 이 땅의 모든 지도자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공의롭게 일하도록 기도하자. ▶상대방이 나보다 강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자. ▶몸과 마음이 약해질 때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한다. 능력의 하나님을 힘 있게 의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자.

/ 〈생명의 삶〉 편집부

##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 T형제를 위해서!

서빙고 한터공동체 T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요. T형제는 제3국을 경유해 한국에 왔습니다. 탈북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한터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T형제는 복음을 듣고 다시 북한으로 가겠다는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현재 목회자로 훈련받으면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T형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공부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이루도록 기도해주시고요. 공부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도록, T형제가 만났던 선교사님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로 쓰임받도록 기도해주시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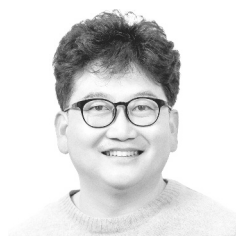
최근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이 닿아서 생사는 확인했지만, 가족들이 한국으로 오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얼굴을 볼 수 있는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T형제가 다시 가족과 만나는 그 날까지 하나님이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기를, 가족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도록 기도해주시고요. 그날을 기다리는 동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도록 기도해주시고요.

/ 하성희 목사(한터공동체)

\*기도제목 보내는 곳: daa2@onnuri.org

## 목사와 함께 떠나는 '섬교회 나들이'

## “어떻게 그 섬에 복음이 전해졌을까?”

이세영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선교 역사가 묻힌 '백령도'와 '중화동교회'는 인천항에서 쾌속선으로 쉽게 달려도 4시간 넘게 걸린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라는 비석까지 세워

놓은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서쪽으로 더 나아갈 수도, 올라갈 수도 없는 끝 섬 중의 끝 섬이라 할 수 있다. 백령도는 2024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접근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땅인데, 어떻게 120여 년 전에 복음이 전해졌을까? 도대체 얼마나 큰 복음의 열정과 열심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했을까?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한다. 백령도 선교 시작은 '중화동교회'의 설립이다. 중화동교회로부터 사곶교회, 진촌교회 등 백년 넘는 교회들을 포함해서 10개가 넘는 교회가 백령도 곳곳에 세워졌다.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시 옹진군 인데(41.9%), 백령도만 따지면 절반이 넘는 주민들이 기독교인이고, 마을에 따라서는 주민 90%가 기독교 신앙인이었다. 대단한 섬이다.

백령도 선교의 시작은 사람의 준비와 수고, 노력과 애씀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하고 싶다. 접근이 쉽지 않은 백령도,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백령도에 정부 전복을 모의했다가 체포된 모반 죄인 무리가 유배를 왔다. 그중 한 사람인 김성진이 유배지로 오기 전에 그의 밭집 속에 기독교 신자였던 사위가 넣어둔 성경책이 있었다. 김성진은 유배 중에 한학자로서 성경 내용에 호기심을 갖고 탐독했다.

백령도에 유배된 자들을 관리하는 허득공은 동학란 때 교회가 피난민을 보호하고, 또 교회에는 아무도 침범하지 않는 것을 보고 크게 감동한 상태였기에 성경을 읽는 김성진과 말이 통하는 사이가 되었다.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 설립에 대한 마음의 씨앗이 심겼다. 하나님은 유배자를 통해 말씀의 씨앗을 백령도로 옮기셨고, 백령도에 있는 허득공을 미리 준비시켜 마음 발을 부드럽게 만드심으로 백령도 선교 역사를 펼치셨다.

중화동에서 시작한 신앙공동체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이들의 간절한 요청으로 가까운 소래교회에서 서경조 장로를 비롯한 전도팀을 백령도로 파송했다. 그들은 약 한 달 동안 머물며 전도했다. 전도팀원 중에 전도부인 김씨가 포함되어 있어서 여성들을 전도하는 일 역시 소홀함이 없었다. 전도팀은

가가호호 방문하며 성경이야기를 전했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더해져 역사적인 중화동교회 창립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시작은 아름다웠고 자연스러웠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동네에 예기치 못한 풍파가 밀려왔다. 목화 구입을 위해 떠난 주민들의 배가 전복되는 사고가 났고, 전원 사망했다. 교회 설립 한 달 만에 일어난 일이라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원망했다. 서양 귀신을 섬겨 재앙이 온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왔고, 위기를 만났다. 시련을 맞은 교회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셨다. 소래교회 전도팀 일원이었던 전도부인 김씨가 중화동교회 성도들에 대한 궁금함과 염려가 떠나지 않아서 백령도에 들리는 어선을 타고 홀로 교회를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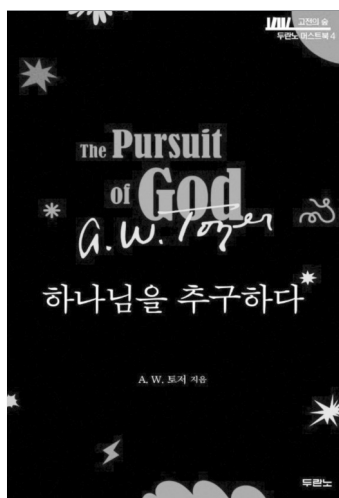
교회의 상황이 좋지 못했다. 하지만 전도부인 김씨는 열심을 내 가정들을 방문하고,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 그 수고와 활약이 중화동교회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기틀이 되었다. 무엇보다 그녀의 요청으로 언더우드 선교사 내외가 중화동교회까지 오게 되었다. 언더우드의 방문은 백령도 최초 성례식에서 7명의 세례자를 낳았다(1900. 11. 08). 처음 전도팀을 보낸 소래교회의 도움과 성도들의 헌신 덕분에 초가 6칸의 아름다운 예배당도 세울 수 있었다.

중화동교회는 높은 계단을 올라야만 만날 수 있다. 다 이유가 있다. 중화동교회는 지금까지 처음 세워진 교회터를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았다. 120여 년 동안 사람과 건물의 모양만 바뀌었지, 자리만큼은 처음 그 자리다. 묵묵히 한 자리를 지키며 지역사회를 품고, 그들과 함께 살아내는 중이다. 언제와도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켜낸 교회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오를 수 있었다. 교회 옆에 '백령기독교역사관'이 건립되어 중화동교회뿐만 아니라 백령도의 선교 역사를 한눈에 보도록 돕고 있다.

백령도의 특성상 차를 타고 섬을 돌아보게 되는데, 쉽게 중화동교회를 찾고 계단을 오르며 교회와 기념관, 기념비를 읽어내는 것에서 그치면 너무 아쉽다. 차를 일부러 중화동 버스정류소 부근에 세워두고 '한국기독교복음선교회기념비'를 시작으로 백령도에서 마련한 중화동순례길을 걸으며 중화동교회까지 이동했다면 좋겠다. 길지 않은 길에 '백령도, 믿음'이라는 주제로 백령도와 중화동교회의 다양한 선교 역사를 벽화로 채워놨는데, 이곳을 찾는 이들을 위한 미리보기 혹은 따뜻한 환영식처럼 느껴진다. 급하지 않은 걸음으로 이곳을 거닐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는 복되고 아름다운 여행이 되기를 바란다.

## 두란노 신간

## 그 거룩한 갈망



《하나님을 추구하다》

A. W. 토저 저 | 두란노 | 14,000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을 새벽 빛 같이 어김 없나니...”(호 6:3).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살고 있을까? 〈호세아〉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도록 힘써야 한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룩한 갈망이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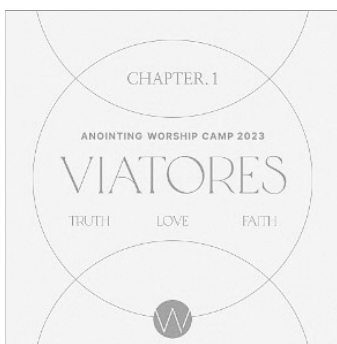
‘시대의 선지자’라 불리는 A. W. 토저의 저서 〈하나님을 추구하다〉는 우리를 영적 부흥의 자리로 초대한다. 그는 이 책이 “하나님을 찾도록 돕기 위한 소박한 시도”라고 고백한다.

책 〈하나님을 추구하다〉는 ‘밤낮 하나님을 추구하는 달콤한 열기 속으로’, ‘자아의 죽음을 뚫고 마침내 임재의 빛 안에’, ‘말씀이 들리는 삶이 시작될 때’ 등을 주제로 스스로 성찰하도록 돕는 열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 마지막 페이지에 기도문이 있어서 책을 읽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추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성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 오늘의 힘(Hymn)

‘찬송가, 찬가’

## “놀라운 그 사랑이야기”

‘예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어노인팅 곡

을 수 없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나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 노래하리 ♪”

이 찬양 가사처럼, 십자가에서 쏟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감사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파산한 품으로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따뜻한 교제를 나누기를, 예수님 안에서 맛볼 수 있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기를 소망한다.

찬양 ‘예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는 QR코드, 유튜브, 멜론, 지니, 벅스 등 음악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다.

온누리와 함께하는  
나부터 탄소중립!탄소중립 앱  
‘움직이는 소나무’

탄소중립을 위해 승용차 대신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런데 이와 같은 노력이 실제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알기가 쉽지 않다. 탄소발자국을 계산해주는 홈페이지가 있지만, 매일 들어가서 확인하기가 번거로울 수 있다.

여기, 나의 노력이 탄소중립을 위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한눈에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에서 스마트폰으로 탄소 감축 활동을 확인하는 앱을 개발했다. 탄소중립 앱 ‘움직이는 소나무’가 바로 그것이다. 집을 나설 때 시작 버튼을 누르고 걷기, 자전거, 버스 중에서 방법을 선택하고 이동하면 거리와 시간, 탄소감축량을 자동으로 측정해준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종료 버튼을 누르면 기록이 저장되고, 이동 거리에 따라 소나무가 몇 그루 심겼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가 줄인 탄소감축량을 소나무의 탄소 흡수량으로 환산해 이용자가 몇 그루의 소나무를 심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냈는지를 보여준다. 탄소감축 활동에 따라 소나무 포인트도 받을 수 있다. 모은 포인트로 친환경 상품을 살 수 있다.



공동체 성경읽기 개별 모임에서 함께 성경을 읽고 있는 성도들.

## ‘공동체 성경읽기’ 첫 개별 모임

25명 참석, 성경과 신앙 서적 듣고, 읽고, 나눔

공동체 성경읽기 첫 번째 개별 모임을 지난 3월 15일(금) 오전 10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믿음홀에서 했다. 성경읽기를 열망하는 성도 25명이 참석했다.

이날 공동체 성경읽기 개별 모임은 강신의 장로 ‘공동체 성경읽기’ 소개, 성경 듣기와 읽기 그리고 나눔, 신앙 서적 듣기와 읽기 그리고

나눔 순으로 진행됐다. 성경은 <시편> 1편, <창세기> 1~3장, <마태복음> 1~2장, <시편> 2편을 읽고, 신앙 서적은 John Stott의 저서 <성경이란 무엇인가>를 읽었다.

강신의 장로는 “공동체 성경읽기 첫 모임에서 귀한 성도들과 함께 깊은 은혜를 나눴다”면서 “앞으로도 공동체 성경읽기 개별 모임이 하나

님 안에서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공동체 성경읽기 개별 모임은 오는 6월 28일까지 이어진다.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 먼저 시작하고, 다른 캠퍼스로 확대할 예정이다.

/ 김다애 기자 daa2@onnuri.org

## 헌혈로 이웃사랑 실천!

3월 31일까지 ‘생명나눔의 기적’

대한민국 ‘피(血)’로 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시즌4가 3월 31일(일)까지 이어진다. 현재까지 성도 1,471명이 헌혈을 시도했고, 937명이 완료했다.

생명나눔의 기적 시즌4에 참여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가까운 한마음 혈액원 헌혈카페 또는 헌혈의 집을 방문하면 된다. ‘온누리교회’ 또는 ‘생명나눔의 기적’에 참여하고 있다

고 밝히면 생명나눔의 기적 인원으로 집계된다(한마음혈액원만 해당).

생명나눔의 기적 및 생명나눔의 날 ‘참여 인증 사진, 한 줄 소감을 카카오톡 채널 ‘온누리교회 생명나눔의 기적’이나 문자메시지(010-2714-0291)로 보내면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SNS 계정, <온누리신문>에 소개한다.

/ 홍하영 기자

## 온누리가스펠프로젝트(OGP) 4월 개강

참가신청 및 문의 각 공동체 양육 담당 총무

4월부터 온누리가스펠프로젝트(OGP)가 공동체별로 개강한다. 참가신청과 문의는 각 공동체 양육 담당 총무에게 하면 된다.

온누리가스펠프로젝트(OGP)는 성경 통합교재 <가스펠프로젝트>를 온누리교회에 맞춰 구성한 나눔 중심의 소그룹 성경공부다. 소속 공동체에서 훈련받은 인도자를 포함해

서 5명 내외의 소수 인원이 성경 각 단원의 핵심 내용을 나누면서 그리스도 중심의 연대기 흐름을 이해하고, 말씀이 나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 역사하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총 12권(구약 6권, 신약 6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의: 02-3215-3239

(공동체 성경읽기)

## 아이들이 노래 부르며 성경 배운다!

기독교 OTT 풍당 콘텐츠 ‘고고바이블송’

기독교 OTT ‘풍당’의 콘텐츠 ‘고고바이블송’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고고바이블송’은 천지창조, 노아의 방주, 다윗과 골리앗 등 성경의 주요 사건을 노래로 만든 콘텐츠다. ‘고고바이블송’의 음원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동요 ‘아기 상어’와 ‘핑크퐁’을 기획한 이든레코즈가 제작했다. 노래뿐만 아니라 아이

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애니메이션도 함께 시청할 수 있다.

양윤대 PD는 “아들이 공룡노래를 외워 끝까지 부르는 것을 보고 ‘성경 내용이 담긴 노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음원 제작의 계기” 라면서 “ ‘고고바이블송’을 통해 미취학 아이들이 노래로 성경을 배웠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 부채탈출 119 재정상담 사역자 양성 과정

사회선교본부 경제정의팀에서 ‘부채탈출 119 재정상담사역자 양성 과정’ 참가자를 모집한다. 성경적 재정관리, 부채상담, 재정상담 등으로 이웃을 섬기고 싶은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주호 팀장(010-2819-7675)이나 이진수 총무(010-8543-4645)에게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 241기 순장학교 참가자 모집

241기 순장학교가 개강한다. 서빙고 순장학교는 3월 31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4시 시온홀에서 진행된다. 양재 순장학교는 3월 31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드림홀에서 열린다. 서빙고 3월 25일까지 아이스쿨에서, 양재 3월 30일까지 각 공동체 총무에게 신청하면 된다.

문의: 서빙고(010-7736-6130)

양재(010-4172-0850)

## ‘요한계시록 집중 탐구여행’

열린다성경 스터디투어 ‘요한계시록 집중 탐구여행’에서 7월 19일(금)부터 27일(토)까지 튀르키예와 그리스를 방문한다. 참가신청은 전화로 하면 된다.

문의: 010-4902-1022

## “미디어 선교에 동참합니다!”

한강공동체와 중종로공동체가 CGN 목적현금을 봉헌했다.

지난 3월 8일(금) 한강공동체가 2024년 상반기 개강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서는 CGN 소개 및 직원들의 특선, 다큐멘터리 ‘바울로부터’ 상영회, 이기훈 목사의 말씀, 새가족 환영, 이임 및 신입 리더십 소개 등이 이어졌다. 특히 한강공동체 다락방장으로 섬기는 CGN 전진국 대표가 주요 사역과 비전을 소개하며 후원을 독려했다.

신철우 대표장로(한강공동체)는 “귀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CGN을 한강공동체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억하고, 기도하며, 섬기겠다는 각오로 목적현금을 봉헌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중종로공동체(대표장로 이상도) 개강예배에서도 CGN 목적현금을 봉헌하고, 미디어 선교에 동참했다.

## 한누리 한국어 수업 수강생 모집

3월 19일부터 매주 화~토 한누리통합팀 사무실

한누리통합팀에서 ‘한누리 한국어 수업’ 수강생을 모집한다. 3월 19일부터 6월 29일까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 한누리통합팀 사무실(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6층)에서 수업한다. 6세 이상

25세 미만 중국 출생 탈북민 자녀(탈북 자녀도 가능)가 대상이다. 수강신청은 3월 15일까지 구글폼(QR참고)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문의: 010-9956-3451



## 260기 결혼예비학교 수강생 모집

260기 결혼예비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4월 6일부터 2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신길교회 1층 그레이스홀에서 진행된다. 두란노서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착

순 마감한다. 회비는 30만 원. 260기 결혼예비학교에서는 임항재 목사, 김숙경, 황규복 부부, 김의수 센터장, 이연숙, 이범석 부부가 강의한다. 문의: 02-2078-3263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 서빙고 만남의 잔치

일시: 3월 24일 오후 5시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시온홀(신관 지하 2층)

|      |      |       |      |      |      |     |      |
|------|------|-------|------|------|------|-----|------|
| 가정사역 | 정문영  | 동대문중앙 | 윤영운  | 표상연  | 여의도  | 이촌  | 김종욱  |
| 김인국  | 김효주  | 이화정   | 김종욱  | 김인국  | 김효주  | 이화정 | 김종욱  |
| 김현음  | 관악금천 | 백상훈   | 성북   | 김현음  | 관악금천 | 백상훈 | 성북   |
| 오주영  | 강병조  | 신수영   | 서대문  | 오주영  | 강병조  | 신수영 | 서대문  |
| 윤경훈  | 김덕순  | 김예지   | 김은지  | 윤경훈  | 김덕순  | 김예지 | 김은지  |
| 이세진  | 김영순  | 김은지   | 김은지  | 이세진  | 김영순  | 김은지 | 김은지  |
| 이재은  | 이반웅  | 박선혜   | 윤선명  | 이재은  | 이반웅  | 박선혜 | 윤선명  |
| 강촌   | 김포   | 이대규   | 정현영  | 강촌   | 김포   | 이대규 | 정현영  |
| 윤선경  | 박동준  | 이문노   | 이문주  | 윤선경  | 박동준  | 이문노 | 이문주  |
| 홍나원  | 남대문  | 이선희   | 채진   | 홍나원  | 남대문  | 이선희 | 채진   |
| 고양은평 | 백순선  | 조성익   | 최옥자  | 고양은평 | 백순선  | 조성익 | 최옥자  |
| 김종묵  | 조성익  | 최옥자   | 성동광진 | 김종묵  | 조성익  | 최옥자 | 성동광진 |
| 임소현  | 노원   | 마포    | 김병찬  | 임소현  | 노원   | 마포  | 김병찬  |
| 이남희  | 고명심  | 노혜진   | 이경희  | 이남희  | 고명심  | 노혜진 | 이경희  |
| 임선아  |      |       |      | 임선아  |      |     |      |

## ■ 신임 다락방장의 각오



/ 김상수 다락방장(인천온누리교회)

나의 힘을 빼고  
주님의 힘으로!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다.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들어간 나귀의 심정으로 소감문을 올린다.

나는 아내와 결혼하면서 교회를 다녔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온누리교회에 오기 까지 여러 교회를 다녔다. 순예배와 같은 소규모 모임에는 항상 참여했다. 성도들과 교제하며 얻는 특별한 기쁨과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가장 특별한 기쁨은 믿음이 없던 나에게 믿음의 확신이 심어진 것이다. 그때 교제의 힘을 알게 되었다.

어느 분의 나눔을 듣고 믿음의 결단을 했다. 그분은 번듯한 회사를 그만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선교를 결단하셨다. 그 과정이 정말 진실해 보였다. 잘 모르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고, 가깝게 지내던 이웃의 이야기이기에 나도 그 영향을 받았던 것 같다.

순예배를 드리면서 얻은 것이 많았던 나는 온누리교회 순장으로 여러 해 섬겼다. 순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니었다. 성도들을 모이게 하는 일, 나눔을 준비하는 일, 역할을 나눠야 하는 일에서 차질이 생기면 낙담하기도 했다. 그럴 때는 믿음의 선배

들의 격려와 기도가 큰 힘이 되었다. 특히 한 선배님이 해주신 “운동을 할 때 힘을 빼는 게 중요하듯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나의 힘을 빼고 주님의 힘을 쓰라”는 조언이 큰 힘이 되었다.

온누리교회의 DNA 중 하나가 ‘순’이다. 순은 믿는 자에게 꼭 필요한 곳이고, 작은 천국을 맛보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이 귀한 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보이지 않는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

이제 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섬기는 일을 맡았다. 처음 다락방장으로 섬겨달라는 권면이 있었을 때 잘할 수 있을지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 망설였다. 아내의 격정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결정했다. 내 힘을 빼고 성령의 권능을 기대하면 할 수 있을 거라는 말씀과 조언들이 계속 생각났기 때문이다. 내가 받았던 격려와 힘을 나눠주는 다락방장이 되고 싶다. 다락방장이라는 귀한 직분을 맡았지만, 나는 예수님을 태운 나귀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에 영광의 자리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나귀를 타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귀의 사정을 다 아실 것을 확신한다.

## ■ 신임 순장의 각오



/ 구본우 순장(푸른누리공동체)

순장과 나  
그리고 하나님 사랑

나는 비교적 ‘순장’이라는 호칭에 친숙한 편이었다. 대학생 시절 CCC(한국대학생선교회, Campus Crusade for Christ) 활동을 열정적으로 하면서 3년, CCC에서 자비량 선교사로 파송 받아서 1년, 취업 이후 온누리교회 여호수아청년부에서 또 2~3년을 순장으로 불러왔기 때문이다.

비교적 긴 시간 순장으로서 섬겼지만 나는 뛰어난 순장이 아니었다. 형제들을 돌보기에는 리더십이 부족하고, 자매들을 섬기기에는 섬세함이 부족했다. 복음을 전하기에는 담대함이 부족했다. 그럼에도 내가 순장 자리에 계속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고 불러주셨기 때문이다. 나의 부족함을 아무리 토로해도 호렘산 떨기나무 앞의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출 3:12a)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거절할 수 없었다.

결혼하고 청년부를 나오면서 순장을 내려놓게 되었다. 자녀를 양육하며 섬기기는 커녕 섬김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문득 돌아봤더니 나에게 두 자녀는 사랑이 아닌 화내는 대상이 되어 있었다. 아이들의 영혼을 돌보며 기도하

고 있지 않았다. ‘나는 순원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장을 해왔는데, 왜 지금의 나는 자녀의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도하는 중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지 않아서 자녀에게 줄 사랑이 없어졌음을 알게 되었다. 가장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섬기지 못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섬길 때 비로소 채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어서 올바른 가장의 모습과 멀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순장으로 불러 주셨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와 반드시 함께해 주실 것을 믿는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작은 공동체인 나의 가정과 온누리교회의 가장 작은 공동체인 우리 순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순장이 되기로 다짐했다.

내가 꿈꾸는 순은 ‘예수님’이라는 나뭇가지에서 돌아나는 새순과 같다. 생명력이 넘쳐 흘러 영혼이 회복되고, 모이기에 힘쓰며, 새로운 순장이 세워져 분순해서 뻗어 나가는 순이다. 나의 가정과 우리 순이 그 모습이기를 기도한다.

## ■ NGO 더멋진세상 말라위 지부에서



/ 이석열 선교사(NGO 더멋진세상 말라위 지부장)

더 멋진 세상,  
더 멋진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히 11:1).

하나님이 NGO 더멋진세상을 통해서 말라위에 희망을 심어 주셨다. 우리가 처음 말라위에서 사역할 때 마을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곤 했다.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많은 정부 관계자나 NGO 등이 여러 프로젝트를 하면서 마을 발전을 약속하고, 함께 준비했는데 지켜졌던 약속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NGO 더멋진세상은 달랐다. 2018년부터 NGO 더멋진세상이 말라위에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한 사역들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를 신뢰하고, 함께 더 좋은 마을로 변화시켜 나가는 동역자가 되었다.

NGO 더멋진세상 말라위 지부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시작한 ECD센터 사역에 말라위 블랜타이어마을 주민들이 함께 참여했다. 프로젝트 제안서를 준비하면서 힘든 일이 참 많았는데, 그때마다 “이 프로젝트가 선정되면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며 기도도 준비했다. 그렇게 준비한 프

로젝트가 최고 점수로 선정되어 2023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2024년 2월 ‘밝은 미래 유치원’(Bright Future ECD Center)을 개원하게 되었다.

ECD센터 개원식에 여성지역개발사회복지부 장관이 참석할 정도로 말라위 정부에서도 이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밝은 미래 유치원’(Bright Future ECD Center) 개원식에 참여한 많은 정부 관계자와 주민들이 도시에도 없는 세련되고, 큰 현대식 건물이 시골 마을에 들어선 것을 보고 놀라워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놀라워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ECD센터를 운영할 교육 프로그램 준비와 아이들을 건강하고 바르게 교육하는 일이다. 훗날 마을 주민들이 ECD센터를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다.

말라위 블랜타이어마을이 NGO 더멋진세상을 통해 더 멋진 마을로 세워질 것을 기대한다. NGO 더멋진세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멋지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이들을 교육하기를 소망하고 있다.

## ■ 해피맘 리더십 간증



/ 임미현 성도(용산공동체)

가장 힘든 시기가  
기쁨과 소망으로!

지금의 나와 일 년 전 나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그때 우리 가정은 매우 위태로웠다. 남편과의 관계가 대화가 불가할 정도로 나빠졌고, 타국에서 세 아이를 양육하면서 점점 우울해졌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귀국했다. 한국에 와서 소중한 분들을 만났고, 지난해 1월 124기 두란노어머니학교에 지원했다. 유익한 강의를 들었고, 스테프들의 기도와 사랑에 감사했다. 하지만 남편과 시댁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여전히 내 마음을 힘들게 했다.

두란노어머니학교를 수료하고, 해피맘을 추천받았다. 신순섭 리더님의 따뜻한 위로와 조언 덕분에 해피맘을 시작하게 되었다. 해피맘 강의는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었다. 조원들과 매주 숙제를 나누고, 공감하며, 서로를 위한 응원과 기도를 하면서 용기를 얻었다. 해피맘에서 행복한 엄마가 되는 방법을 배우면서 남편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다. 우리 가정이 점점 올바른 길로 방향을 잡아갔다. 남편 혼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비신자였던 남편이 일본에

서 두란노아버지학교에 참여했다.

오랜 일본 생활에 한국으로 이직하기를 꺼리던 남편이 모든 것을 접고 귀국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남편의 이직이 순탄하게 이루어졌다. 아이들도 아빠와 함께하니 표정과 성격이 밝아졌다. 이제 온 가족이 하나가 되었다.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가정이 아니라 기도와 믿음으로 단단해진 가정이 되었다.

두란노어머니학교 스테프로 섬기면서 만난 자매들을 보고 내가 가야 할 올바른 길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분들과 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있다. 사랑과 축복을 나누는 시간이 은혜이자 감사다. 이제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다.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두려운 마음도, 불신이 가득했던 남편과의 관계도, 늘 불안함에 떨었을 아이들도 모두 기쁨으로 하나 되고 있다. 계속 노력해야 하고, 끊임없이 문제들이 생기지만,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다.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지만, 든든한 기도의 동역자가 있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기 때문이다.

권사칼럼

러브소나타 ‘화관’ 만드는 은혜



김성옥 권사  
(평택온누리교회, 러브  
소나타 화관팀장)

“모든 것이 은혜,  
은혜입니다.”

러브소나타 집회에서 사용하는 화관을 만드는 사역을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이자 팀원들의 진심이 담긴 고백이다.

집사 직분을 받는 과정에서 그저 기쁜 마음으로 시작한 러

브소나타 화관 제작 섬김에 점점 애정을 갖게 되었다. 팀장으로 러브소나타 화관팀을 이끈 지도 어언 12년이 되었다. 혼자라면 12년이라는 시간을 묵묵히 섬기기 어려웠을 테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 준 동역자들 덕분에 온전히 섬길 수 있었다.

러브소나타 화관을 제작하는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다. 함께 모여 누군가는 잎을, 누군가는 꽃을, 누군가는 열매를 붙인다.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크신 손길도 느낄 수 있다. 고단할 수도 있는 작업이지만, 늘 기쁨과 서로를 향한 배려가 끊이지 않는다. 최선을 다하는 팀원들의 수고와 헌신을 볼 때마다 내가 더욱 채워지는 경험을 한다.

어려운 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교회 문이 닫히고, 모든 모임이 막혔을 때는 어떻게 섬김을 이어가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는 힘과 열정을 허락하셨다. 혼자서 가정에서 리본을 묶고, 꽃을 다듬으며, 러브소나타를 통한 일본 땅의 부흥을 위해 기도를 시작했다. 섬김의 손길이 부족해서 힘에 부치려는 순간에는 팀원들의 애정 어린 마음과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셨다. 비록 한 자리에 모일 수는 없었지만, 각자 가정에서 일본 땅을 마음에 품고 화관 작업을 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올해 5월 열리는 러브소나타에서 사용할 화관 2천 개를 평택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만든다. 그 일이 캠퍼스에서 가능할까 싶었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잘 감당하고 있다. 평택온누리교회 화관팀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모여 작업한다. 새벽기도회가 끝나자마자 간단히 아침 식사를 하고, 기도도 화관 제작을 시작한다. 점심 식사도 함께하고 다시 화관을 만든다. 새벽에 시작된 일이 오후 3시가 되어야 끝이 난다. 지칠법한데 러브소나타 화관 제작 팀원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늘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몸의 고단함을 다 잊을 만큼 영혼의 기쁨을 채워주시기 때문이다.

러브소나타 집회에서 사용하는 화관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다. 중앙의 흰 꽃 3개는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하고, 보라색 꽃은 ‘회개’를, 흰 꽃은 ‘구원’을 뜻한다. 우리가 구원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나타낸다. 이 화관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구원받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복음을 말해 준다.

러브소나타에서 일본의 많은 영혼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이 화관을 쓸 때마다 그들에게서 자유함과 평안함이 느껴진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복음의 살아있는 힘을 다시금 경험한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그 땅의 영혼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로 남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해두신 선물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일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화관을 만들고 있다. 일본에 부흥의 물결이 일어 모든 영혼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소망한다. 그날까지 우리가 만든 화관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소망한다.

선교지에서 온 편지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 아름다운 장소



김정희 선교사  
(온누리다문화  
평생교육원)

온누리다문화평생교육원(이하 다평원)은 2019년 개원했다. 2020년부터 이주민 자녀들을 위한 방과 후 학교 ‘레인보우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이다. 2022년부터는 다평원이

화성시 이주배경청소년들을 위한 남부권 거점기관으로 지정돼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민 자녀들을 찾아가는 ‘한국어교실’과 ‘학부모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공항, 화성시인재개발원, 장안대학교와 협력해서 다양한 형태의 멘토링 클래스도 운영하며 교과 학습과 진로 및 예체능 교육도 하고 있다. 이주민 자녀들의 한국 생활을 돕고, 교육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레인보우스쿨에 다니는 베크는 2022년 11월 한국에 온 러시아 국적의 초등학교 5학년이다. 교육열이 넘치는 엄마와 함께 살고 있다. 2022년 겨울, 베크가 “한국어를 정말 배우고 싶어요. 저를 데려가 주세요”라고 뽀뽀뽀뽀적인 종이를 들고 다평원 문을 두드렸다. 레인보우스쿨에 입학하고 학교에 다니면서 베로 니카라는 여자친구를 따라 교회에도 출석하고 있다. 선생님들의 사랑과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처음에는 엉뚱하고 한국어를 잘못 해서 학교에서 괴롭힘당한다고 엄마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베로니카를 만나면서 교회에도 잘 다니고,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다. 지난해에는 전국 26개 레인보우스쿨에서 한국어 말하기대회를 열었는데 다평원 대표로 출전하기도 했다. 베크는 한국에 온 것을 정말 좋아한다. 특히 레인보우스쿨을 좋아해서 엄마가 1학기만 마치고 경주로 이사 간다고 했

는데, 베크가 레인보우스쿨 때문에 안 가겠다고 해서 2학기에도 레인보우스쿨을 다녔다.

올렉은 아빠와 할머니, 여동생과 함께 사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다. 여동생과 할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돌봐야 한다. 그래서 1학기에는 결석을 많이 했는데, 가정방문을 통해 동생이 화성시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게 되면서 지금은 누구보다 열심히 레인보우스쿨을 다니고 있다.

올렉은 미술에 소질이 있어서 미술 시간에 반짝반짝 빛이 난다. 그런데 다른 시간에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고, 다른 친구들과 달리 자전거가 없어서 먼 거리를 걸어 다닌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폭발할 것 같은 모습도 자주 눈에 띄었다. 그래서 미술 공부를 통해 스스로 다스리며 안정을 찾도록 도와주고 있다. 모델 한현민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누군가에게 발탁되었으면 하는 꿈을 갖고 한국어 말하기대회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어려운 한국어 원고를 혼자 빠곡히 써 와서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되는 본선에 진출하겠다고 결의를 다지는 멋진 친구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쉽게 들었는데, 레인보우스쿨을 섬기기 전까지는 이 말의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했다. 레인보우스쿨에 다니는 아이들이 한 없이 사랑스럽고 예쁘다. 어디로 튈지 모르고, 장난 가득한 행동 하나하나 때문에 물가에 내놓은 아기처럼 불안해서 잠 못 들기도 한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이들을 찾는 날이 일주일에 서너 번은 된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5년 동안 이주민 150여 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선생님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사랑을 통해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을 경험했다. 섬김과 사랑으로 자란 이주민 자녀들의 멋진 미래를 그려본다. 다평원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 아름다운 장소가 되기를 소망한다.

신앙에세이



박성천 목사  
(부천온누리교회)

올해 가을에 있을 제4차 서울 로잔대회를 준비하면서 온누리교회에서도 <사도행전> 강해가 진행되고 있다. 매주 <사도행전> 강해를 들으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몽클함과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설렘, 어떤 일이 펼쳐질지에 대한 기대감이 일어나고 있다.

올해부터 새롭게 담당하게 된 부천온누리교회 희락공동체와 사역팀 성도들도 사도행전적 생명력있는 성령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지난 주일예배 말씀에서 “사도행전적 공동체는 생명력이 있어서 ‘가든지 보내든지, 배우

든지 가르치든지’ 하는 날마다 역동하는 공동체”임을 선포했다. 또한 “사도행전적 공동체는 지식이 아니라 순종이고, 망설임이 아니라 담대함”이라고 도전했다. 이 말씀에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신 한 분의 다락방장님과 한 분의 순장님을 소개하고 싶다. 부천온누리교회 희락공동체 순장님이 내게 아래와 같은 글을 보내주셨다.

“목사님, 어제 오후에 순식구 세 집이 함께 모여 운동도 하고, 저녁도 먹으며,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일예배 말씀에 받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한 학기에 한가지 과정은 듣자!’는 설교 말씀이 다들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듣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다같이 ‘QT스쿨’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몇 분은 ‘전도학교’에 신청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했던 것은 어제 모인 분 중에서 평소 순예배에 잘 나

오지 않는 순원이 있었는데, 그분도 함께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큐티 나눔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함께 큐티를 나누는 단체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자장면을 먹고 온 터라 단체채팅방 이름이 ‘QT반점’입니다. 채팅방에서 나가면 다시 초대하고, 자장면을 사는 규칙도 만들었습니다. 함께 독려하는 즐거움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이라 어색했지만, 오늘부터 ‘QT반점’에 큐티 나눔을 용기 내 올렸습니다. 올 한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이 생겼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받고, 바로 변화의 물결이 생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천온누리교회 다락방장님과 식사교제하면서 나눴던 내용도 도전이 되서 나누고자 한다. 다락방장님에게 올해 가진 꿈과 기도제목을 여쭙봤다. 다락방장님의 대답이 나에게 큰

감동이였다.

“올해 저의 소망은 제게 맡겨진 다락방 안에 순들을 부흥시키고, 분순을 해서 분다락방을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간혹 순장님 중에 순을 부흥시켜서 분순하겠다는 기도제목을 가진 분들이 있었다. 그런데 ‘분다락방하고 싶다’는 소망은 처음 들었다. 얼마나 행복한 나눔이었는지 모른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치관이 “크고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오늘 하나님께 순종할 뿐이다!”이다. 올해 로잔대회와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되고 설렌다.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케리 선교사의 기도문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긴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Acts29’ 꿈꾸는 공동체

서빙고 02.79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2부 오전 11:00 분당  
3부 오후 1:00 분당 4부 오후 3: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분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분당, 비전홀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0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전 6:30 분당

**목요열방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정성민 전도사(010-9496-705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이지은 대표(010-8741-3077)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홀

**Love My Life 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박운애 팀장(010-2771-007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홀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홀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현식 팀장(010-3597-7152)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 온누리M미션**  
네팔어예배 14:00 선교관 202호 / 러시아어 예배 13:00 선교관 301호 / 몽골어예배 14:30 선교관 101호 / 아랍어예배 14:00 본관 B102호(매달 첫 주만 선교관 202호) / 페르시아어예배 11:00 선교관 ACTS29홀

**인천 온누리M미션**  
모자이크예배 14:00 3층 소망홀

**안산M센터**  
네팔어예배 10:00 303호 / 러시아어예배 10:00 지하 Onnuri Hall / 몽골어예배 10:30 201호 / 미얀마어예배 10:30 202호 / 베트남어예배 10:30 301호 / 아랍어예배 12:00 2층 Library / ANEWS예배 1부 9:00, 2부 11:00 4층 Manna Hall / 우즈베키스탄어예배 14:00 304호 / 인도네시아어예배 16:00 3층 Startree / 중국(청장년)예배 11:00 4층 Manna Hall / 캄보디아어예배 10:00 302호 / 태국어예배 14:00 4층 Manna Hall / 필리핀어예배 14:00 지하 Onnuri Hall / 대학청년부 12:30 305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11:00 305호 / 다문화 꿈땅 11:00 1층 Star Tree Academy / 다문화 예꿈 11:00 지하 Dream Kids Room

**김포M센터**  
러시아어예배 14:00 703호 / 몽골어예배 17:00 706호 / 미얀마어예배 11:00 706호 / 캄보디아어예배 11:00 703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토요주일 14:00 703호 / 다문화 꿈땅 11:00 705호

**군산M센터**  
ANEWS예배 11:00 101호 / 다문화 차세대예배 11:00 102호

**남양주M센터**  
네팔어예배 토요주일 20:00 304호 / ANEWS예배 11:00 301호 / 캄보디아어예배 11:00 304호 / 힌디어예배 토요주일 20:00 301호 / 다문화 차세대예배 13:00 306호

**서산M센터**  
ANEWS예배 11:30 비전홀

**평택M센터**  
몽골어예배 11:00 2층 분당 / ANEWS예배 13:30 4층 열방홀 / 파워웨이브 11:00 4층 열방홀 / 다문화 꿈땅 11:00 2층 차세대예배실

**화성M센터**  
네팔어예배 11:00 202호 / 캄보디아어예배 10:00 301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 신관 누리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수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9:30~10:20  
장소: 서빙고 콘서트홀, 양재 온유흐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틀 운행**  
시간채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  
문의: 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2495-2319

**군선교 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CMN 라파티م 외국인 진료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넷째 주일 오후 4시~6시  
분야: 내과, 가정의학과, 치과, 간호사  
장소: 서빙고 선교관 B1 라파진료실  
문의: 박귀홍 팀장(010-9990-2875)

**2024년 하반기 (8~12월) 온누리교회 결혼예배 예약 안내**  
일시: 3월 19일 화요일 오후 7시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지하 2층 드림홀  
요건: 예비신랑, 신부 혹은 양가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온누리교회 등록 교인이면 가능(예비신랑, 신부는 타교회 상관없이 등록 교인이여야 함)  
자격: 예비신랑, 신부 혹은 양가 부모님(형제나 친척의 대리 예약은 불가함).  
준비: 예약금 100만 원(당일 이체불가, 현금으로 준비) 및 등록교인증명서(예비신랑, 신부 중 타 교회의 교인인 경우 소속 교회 '등록교인증명서' 지참)  
선정: 당일 오후 7시까지 참석하신 분들에 한하여 제비뽑기 방식으로 순번추첨 후, 순서대로 결혼예배날짜 선정 예약.  
문의: 02-570-7505(일, 월 휴무)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02.57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쁨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쁨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1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1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고등부: 교육관 온유흐(A동 2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영아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2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온유흐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4:0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1부예배(사랑부)**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비전홀B  
문의: 이은일 목사(010-3646-7994)

**2부예배(예수사랑부)** 오전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종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흐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빙랜드  
문의: 김은지 관사(010-3285-1726)

**CMN 토보티م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두번째 주일 오후  
장소: 김포M센터(이주진, 난민 의료지원)  
분야: 치과의사, 치위생사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CMN 드림팀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넷째주일 오후 2시~6시  
장소: 안산 고려인 동포교회  
문의: 이도희 팀장(010-5663-1921)

**온누리선교재단 재정팀 채용 공고**  
업무: 결산 및 예산관리  
형태: 정규직 사원(주5일 근무)  
자격: 기업회계 경력 3년 이상  
학력: 2년제 이상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앙간증문  
제출: honeyple63@onnuri.org  
문의: 이성호 총무팀장(02-3215-3101)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대상: 초1~중1(타캠퍼스, 타교인 지원 가능)  
연습: 매주 토요일 오후 1~4시 / 첫째·셋째 주일 오후 1시 30분~3시  
장소: 서빙고 성가대실(지하 1층)  
문의: 김미현(010-8285-6435)

**제528기 업그레이드 부부학교 모집**  
일시: 4월 6일~7일(1박 2일)  
장소: 경기도 광주시 진새골온누리교회 사랑의집  
대상: 더 풍성하고 행복한 가정을 원하는 부부  
문의: 02-444-5882

부천 032.322.9686

**토요주일예배** 9: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 5부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분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를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아이를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평택 031.651.9680

**토요주일예배** 10:2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분당 / 2부 11:25 분당 / 3부 14:05 분당

**대학청년(주일)** 16:00 분당

**영어예배(주일)** 14:10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13:30 301호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분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8:00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분당

수원 031.895.6500

**토요주일예배**  
토요주일예배, 예꿈놀이학교, 사이닝키즈, 어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찬양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 11:30 믿음홀 / 초등부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소년부 9:00, 11:30 사랑홀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등부 9:00 경찬홀 / 영어예배 차세대 11:30 경찬홀

인천 032.437.9686

**토요주일예배** 9: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4:00

**대학청년** 16:00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를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소년부 9:00, 11:30 믿음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1:3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2층 분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분당

대전 042.825.3642

**토요주일예배** 10:00 분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세종교육관 분당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분당 / 6:00 세종교육관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분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분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땅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 유년부 11:30 402호 / 세종교육관 소년부 11:30 411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파워웨이브 9:00 402호

강동 02.475.9686

**토요주일예배** 11: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프라미스(분당), 프라미스U(사랑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3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분당  
금요기도집회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20:00 분당

**새벽예배** 오전 6:20 분당

남양주 031.565.9686

**토요주일예배** 10:30 3층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대학청년) 14:00 / 4부(저녁) 19:00 / 행복한 하나예배(탈북민) 11:00 온유흐 / 다문화예배 15:30 꿈땅홀

**외국어예배**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1호 /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3층 분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분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9:00 2층 꿈땅홀 / 초등부 11:30 2층 꿈땅홀 / Awana 토요일 10:00 2층 꿈땅홀 / 중등부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9:00 기쁨홀

양지 031.331.8171

**토요주일예배** 9: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J대학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부·유치부 11:30 위더슨홀 / 유년부 11:30 아벤젤라홀 / 초등부 11:30 킬보른홀 / 중등부·고등부 11:30 박모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퍼스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박모세홀 / 금요성령집회 21:00 시간홀(7~8월)

**새벽예배** 월~금 6:00 시간홀

영종 032.752.7937

**토요주일예배** 10:00 3층 백향목홀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 백향목홀(3층)

**새벽예배** 월~금 5:3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파워웨이브(중고등부) 14:00 / 꿈땅(유초등부) 11:30 언더우드홀(2층), 예꿈(유치부) 11:30 아벤젤라홀(2층)

**수요여성예배** 10:30 백향목홀(3층)



후원약정식

24년 3월 16~17일



INTERNATIONAL NGO

더멋진세상  
better world

# 너와 내가 만드는 더멋진세상

더멋진세상은 전세계 25개 국가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며  
긴급구호 활동을 돕는 국제개발 NGO입니다.

## 후원방법

현 장

일 시 3월 16~17일

장 소 온누리교회 각 캠퍼스의 주일예배 시

예배시간에 나눠주는 '더멋진세상' 후원약정서를  
작성해 주세요.

온라인

일 시 상시 가능

## 후원안내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702-002535

(사)더멋진세상

문 의 02-2271-2246



승기후원



승익후원

